

비교언어학의 원리와 외국어교육에 대한 제언 -독일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성상환 (서울대)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독일어와 영어의 문법구조를 중심으로 비교언어학과 외국어교육과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독일어와 영어의 대표적인 유형론적인 차이점과 특징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두 언어를 비교적 관점에서 교수할 때 주목해야할 차이점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게르만어를 대표하는 독일어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언어비교에 입각한 외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독일어와 영어의 부정사구문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본다. 이에 대한 논의가 게르만어 격체계의 역사적 변화 및 동사전철의 형태변화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에서 도출된 비교문법적 원리가 외국어교육을 위해 어떠한 제언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본다.

핵심어: 비교언어학, 독일어와 영어비교, 게르만어 비교연구, 외국어교육, 부정사구문, 게르만어격변화, 동사전철의 변화

1. 도입: 게르만어 비교연구의 시사점

언어를 비교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언어비교에 관한 연구가 언어들 사이의 변이에 관한 모형이나 변이의 규칙성과 같은 개별언어들의 특징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러한 특징들은 두 언어를 비교하는데 있어 상당 부분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영어와 독일어를 대조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독일어의 본질적인 특성들을 밝혀내는데 적합하다고 본다. 독일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한 게르만어 비교연구는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이하 König 2001 참조).

(i) 고대고지독일어와 고대영어와 같은 게르만어의 초기 단계에서 두 언어집단은 서로 상당히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적으로 서로 친족관계에 있는 두 언어는 공간적인 분리와 언어접촉 또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 역사적으로 단절되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두 언어는 유전적으로 서로 친족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 유형론 상으로 보았을 때 서로 상당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독일어 완료시제의 형태는 영어보다도 로망스어의 구조와 닮았다(예: *haben*과 *sein* 완료형 vs. *avoir*와 *être*).

(ii) 서부게르만어군에 속하는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도 가장 포괄적이며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져 있는 언어에 속한다. 이러한 토대위에 수많은 변이들의 매개변수들 Parameter을 연관시키는 섬세하면서도 포괄적인 언어비교가 가능하며 이러한 언어적 변이들의 다양한 매개변수들에 대한 일반화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다.

(iii) 독일어와 영어를 비교하는 작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영어의 지리적인 위치나 언어접촉 Sprachkontakt등으로 인해 영어가 유럽대륙에 속하는 언어들과 많은 특징들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독일어는 유럽언어들의 핵심영역에 속하며 B. L. Whorf가 ‘표준적인 보통유럽언어’ Standard Average European라고 지칭한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인지 문법적 관점에 입각해서 두 언어를 연구하는 상황에서 영어와 독일어의 비교연구가 하나의 일정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진행된다는 것은 이 사실이 외국어습득에 대한 중요한 참조기준이 될 수 있다. 두 언어를 비교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어에 나타난 여러 언어적 특징들 가운데 대조적인 구조들을 통해 독일어의 특징들을 보다 자세히 밝혀 줄 수 있다는 것이다(König 2001). 이러한 노력은 두 언어를 비교 학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서로 대응하는 구조들을 다루게 해 주며 외국어습득과정에도 직접적으로 상관관계를 맺게 해주며 두드러진 구조에 대해 특별한 인지적 관심을 불러 올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구상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본질적인 목표는 두 언어들 사이의 대조적 차이점들의 목록을 부분적으로 제시할 뿐 아니라 다양한 대조적 구조들에 기반한 언어교육의 시사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두 언어사이의 대조적인 차이점들은 비교문법에 입각하여 해당 외국어를 교수하는데 있어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본다. 왜냐하면 외국어를 배울 때 등장하는 인지학습이론은 의도적으로 특정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 2 언어습득과정을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때 학습 전략은 정보를 이해하고 학습하거나 또는 해당 외국어 관련 정보를 유지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정보 처리과정에 집중할 것이다. 외국어 학습에 대한 이러한 시도는 언어학습이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언어 학습에 대한 행동주의적 설명과 대조를 이루며 차별화된다. 한편으로 이러한 비교언어연구는 차후에 게르만어의 언어 유형론적인 분류를 시도하거나 다양하게 변화하는 언어적 특징들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설명하려는 노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Hawkins 1994, 2004).

2. 게르만어를 대표하는 독일어의 전반적 특성

독일어와 영어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유전적인 친족관계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로 볼 때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두 언어 모두에서 강변화동사와 약변화동사들의 차이점들을 찾을 수 있다. 두 언어 모두 형태적인 대립관계를 통해 두 가지 시제(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며 어순을 통해 다양한 문장화법(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을 구분해 준다. 어휘론적인 목록에서의 예를 들자면 분리동사와 불연속구성성문을 포함한 동사들의 존재를 언급할 수 있겠다(예를 들어 *umleiten*, *aufhören*, *ankleben* vs. *look up*, *sing along*, *reel in* 등 cf. Olsen 1996). 역사적인 관점에서 게르만어에 전형적으로 고유하다고 볼 수 있는 문법적 구조들 가운데 많은 특징들은 아직도 독일어에서만 찾을 수 있다(Waterman 1976, Keller 1995).

또한 게르만어의 음소목록에서 특징적인 것은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원순전설모음과 비원순전설모음의 대립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구분은 최소대립쌍 *Minimalpaar*인 *Kiel - Kühl* 이나 *lesen - lösen* 과 같은 Umlaut를 중심으로 한 차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다만 음소적 차원에서 변모음을 통한 동사의 결합가 증대와 자/타동사의 구분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독일어와 영어에 공통적인 범게르만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예: *lie/lay*; *liegen/legen*).

형태론상으로는 3가지의 태(능동, 수동, 중간태)의 구분과 부가어적 형용사구문에서 나타나는 강변화/약변화 굴절형태의 구분(*ein kalter Wind* vs. *der kalte Wind*)을 게르만어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Harbert 2007, Salmon 2015). 이와는

반대로 영어에서 다양한 상 Aspekt의 형태를 구분해 주며 (he runs - he is running) 강하게 문법화된 대립관계를 보여 주는 현상은 독일어나 다른 게르만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독일어의 경우 기껏해야 진행상을 형성해 주는 경우 간소한 초기 단계의 형태구분만이 존재한다(예: er ist beim/am Arbeiten).

또한 문장구조와 관련하여 게르만어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평서문 주문장에서 정동사가 문장의 두 번째 위치에 오며(V2) 부문장에서 정동사가 문미에 온다는 것을 들 수 있고 문장 배어법과 관련 위치장topologische Felder의 구분(Vorfeld, Mittelfeld, Nachfeld)도 언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독일어에만 존재하지 영어에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문법적 현상들이다. 주어와 목적어와 같은 문법관계를 형태론상의 격체계를 통해 표시하는 것도 다른 현대게르만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일어만의 문법적 특징인데 타 게르만어들의 역사적 이전 단계에서는 존재했던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대아이슬란드어 Altisländisch나 고대영어 Altenglisch에서는 1격 Nominativ으로 표시된 논항이 주어와 일치하였고 반면에 현대영어나 현대 스칸디나비아언어들의 경우 주어 Subjekt는 어순에 의해 즉 정동사 앞의 위치에 의해 파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단지 현대영어나 현대스칸디나비아언어들의 경우 목적어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순전히 통사적인 전략만이 유효하다. 즉 3가 동사(dreiwertige Verben: 주어를 포함 논항을 3개 요구하는 동사)에서만 목적어들은 어순이나 전치사를 통해서 구분이 가능하다. 2가 동사들의 경우에는 목적어들이 구분될 필요가 없으나 독일어의 경우 대응하는 목적어들이 상이한 형태론상의 격표시를 통해 구분이 된다:

- (1) a. Ich kenne sie.
 b. Ich schreibe ihr.
 c. Ich gedenke ihrer.

게르만어를 특징지어 주는 속성에서 또한 중요한 사실은 부동사 Konverb, 즉 부사적 분사가 거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영어의 경우 로망스어나 슬라브어들의 모형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상응하는 부사적 분사(부동사)구문들은 독일어로 번역할 때 대개 정동사가 포함된 부사적 문장 finite Adverbialsätze, 즉 주어, 동사가 모두 실현이 되는 부문장을 통해 실현된다.

- (2) a. Having been delayed by a traffic jam I missed my plane.
 b. Nachdem ich durch einen Stau aufgehalten wurde, verpasste ich mein Flugzeug.
 c. Weil ich durch einen Stau aufgehalten wurde, verpasste ich mein Flugzeug.
 d. He nodded merely, not trusting his voice.
 e. Da er seiner Stimme nicht traute, nickte er nur.

특히 (2a)의 영어구조를 독일어로 옮길 경우 영어분사구문 자체가 중의성을 띠게 됨으로 분사구문이 아닌 정형문으로 풀어야 되는 독일어 해당구문에서는 시간적 혹은 원인의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2b, 2c). 이러한 경우 영어에서는 하나의 구조가 중의적인 반면 독일어의 대응구조는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완전한 문장을 통해 의미가 보다 섬세하게 구분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어와 독일어의 구조적 차이점들은 독일학생들에게도 특히 어렵게 다가오는 문법이라고 알려져 있다(p.c. A. Huwe).

3. 부정사구문의 특성

독일어와 영어의 문법구조를 비교함에 있어서 부정사구문도 외국어교육에서 고려할 대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영어의 부정사구문 *Infinitvkonstruktion*을 고려하면 독일어에도 유사한 구조를 찾을 수 있다(예: *It is boring to study philosophy* vs. *Es ist langweilig, Philosophie zu studieren*).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영어의 부정사구문을 독일어로 옮길 때 독일어 문장구조가 영어 문장구조와 크게 달라져야 한다. 영어의 경우 역사적으로 전치사 ‘to’를 활용한 부정구문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어져 왔다(Visser 1972; Denison 1993). 이는 영어에서 주어 중심의 한 어순의 재배치와도 연결이 되며 이 어순 *word order*은 지금까지 주로 언어유형론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었으며(Greenberg 1963, Vennemann 1982, Harris/Campbell 1995), 문법관계 및 의미역, 그리고 격할당 문제와도 관련된 포괄적인 주제이다. 어순과 관련하여 고대게르만어로부터 현대 게르만어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어순의 고정화이다. 게르만어를 다른 인도유럽어로부터 분리시키는 결정적인 특

질들 중 하나가 주장제가 어간의 첫음절에 고정되었다는 사실인데, 그 결과 문장 구성 성분들 간의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하는 격 체계가 통합, 간소화되면서 현대의 게르만어에서는 비교적 어순이 고정되었다. 특히 현대영어의 경우는 문법 관계가 선형적 순서와 형상적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며 따라서 ‘주어’라는 문법적 범주가 고대 영어나 현대 독일어에 비해 구조적으로 크게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생성문법 이론에서는 영어와 같이 어순이 고정된 언어에서 주어부가 동사구(VP)와 같은 층위에서 파악되지 않고 동사구 바깥 영역에서 문장과의 관계에 의하여 그 위치가 파악된다고 본다(VP- external argument). 영어의 문법관계의 경우는 선형적 순서와 형상적 구조에 의해 통합적으로 결정됨으로 이는 주어의 위치와 ‘to 부정사구’의 발달과도 깊은 연관을 맺는다. 아래의 부정사구의 용례들은 독일어의 경우 영어와 같은 부정사구조가 훨씬 덜 발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독일어 대응구조에서는 영어의 부정사구문을 옮길 때 정동사가 포함된 정형문장으로 표현해야 할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영어의 부정사구문을 독일어의 정형문장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은 접속사를 활용하여 의미를 상세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절에서 영어의 부동사 Konverb구문이 독일어에서 정동사를 포함하는 정형 문장으로 대응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1. 동사의 종류에 따른 부정법

직접 목적어+ ‘말하다’, ‘생각하다’, ‘추측하다’ 등의 의미에 해당하는 동사의 부정법과 관련하여 다음에 제시된 영어문장은 단어 그대로 부정사를 활용하여 독어로 옮기기 어렵다(subject to object raising).

(3) We think him to have killed the cow.

이 경우 영어의 부정사구문을 독일어에서는 의미적 상세화를 수반하는 종속절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이때 원래 영어문장에서 주절의 4격 목적어(him)가 종속절의 주어(er)로 바뀐다. 즉 영어의 상승구조가 독일어의 해당구조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Wir glauben, dass er den Kuh geschlachtet hat.

이 경우 또 다른 방법은, 어순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정형 ‘to be’를 번역하지 않은 채로 놔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독일어에서 그에 상응하는 타동사를 써야 하고, 그에 맞는 전치사를 보충해야 한다.

(5)

a. We believe him to be the best candidate in town.

b. Wir halten ihn für den besten Kandidaten in der Stadt.

3.2. 인식의 양태나 개연성의 정도를 표현하는 동사의 부정법

상승구조와 유사한 이 유형에 해당하는 동사들의 부정법 구문도 부문장을 통해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영어에서는 주절의 주어로 등장할 수 있는 논항이 독일어의 대응구조에서는 새로운 부문장의 주어가 되며 주절의 주어는 비인칭 주어 “es”로 대체된다. 즉 영어에서는 가능한 논항의 상승이 독일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Plank 1984: 353).

(6) subject to subject raising

a. John is likely to come.

b. Es ist wahrscheinlich, dass John kommt.

c. It is likely that John will come.

d. *John ist wahrscheinlich zu kommen.

독일어의 경우 이때 주절의 동사를 부사적으로 대체 할 수도 있다.

(7)

John is likely to come to school.

Wahrscheinlich kommt John zur Schule.

3.3. 목적어+ ‘의지, 기호, 부정적인 소망, 허가, 명령’을 뜻하는 동사들의 부정법:

영어의 경우 다양한 동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독일어의 경우에는 부문장인 dass절이나 wenn절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경우가 많다. 수동을 뜻하는 부정법 구문일 경우에는 ‘lassen’을 써서 번역할 수도 있다.

(8)

a. They want us [PRO] to stay with them.

Sie wollen, dass wir bei ihnen bleiben.

b. I would like you [PRO] to sing.

Ich möchte gern, dass du singst.

c. She ordered the vans [PRO] to be loaded.

Sie ließ die Transporter laden.

(8)의 영어예문들에서는 분명히 ‘PRO 부정사’가 관련되어 있고 본래 PRO가 부정사의 비어 있는 주어로서 나타날 수 있는 구조도 존재한다(예: She wants [] to be rewarded). (8a)의 대명사 ‘us’는 의미부와 통사부의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데 ‘us’는 to stay 부정사의 의미론적 주어이며 주동사 ‘want’의 통사적 목적어이다. GB를 중심으로 한 생성문법이론에서 주어진 구성 요소는 둘 이상의 통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통사부와 의미부의 인터페이스(접점)를 지원하기 위해 형식상 PRO가 추가된다(Haegeman 1994, Koenenman & Zeijlstra 2017). 이 경우 PRO는 ‘us’를 지칭한다. 이는 (8b), (8c)의 영어구문에도 적용이 된다. 반면에 독일어의 대응구조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기타 추가적인 부정사구문들을 비교할 수 있다.

3.4. 기타 부정사 구문들(예문들은 Hoops et al. 에서 부분적으로 따옴)

3.4.1. 잉여적 부정사구문

영어에서는 상황을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부정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독어로 옮겨졌을 때에는 불필요해 보이는 경우들이 또한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독일어구문에서 부정법 구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구문들은 이전의 연구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cf. Hawkins 1995)

(9)

- a. Which of these two roads is the proper one to take?
- b. Welche dieser beiden Straßen ist die richtige?

이때 영어의 부정사구문을 그에 상응하는 전치사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다(예: I am going to see a doctor vs. Ich gehe zu einem Arzt).

3.4.2. 수동형 부정사구문

수동형 부정사구문은 독어보다는 영어에서 더 자주 쓰이는 구문이다. 따라서 독어로 번역할 때에는 능동형 부정사구문이나 명사형구문이 대응된다.

(10)

- a. The key was nowhere to be found.
Der Schlüssel war nirgends zu finden.
- b. She brought her car to be washed.
Sie brachte ihr Auto zum Waschen.

다만 독일어에서 부정사구문이 양태나 개연성을 드러내는 수동의 뜻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영어에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예: *This book is to read vs. Das Buch ist zu lesen).

3.4.3. 특수한 부정사 구문들

독어로 번역하기 힘든 특수한 부정사 구문들이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1) for/on/without + 주어/인칭대명사+부정법(영어문장들의 경우 Huddleston & Pullum 2002 참조: 1178):

- a. They've arranged for the electrician to come on Monday.
- b. Sie haben es so eingerichtet, dass der Elektriker am Montag kommt.

이런 구문은 독일어의 경우 dass절, damit절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영어 문장에서 전치사 다음에 위치한 주어(주체)가 종속절의 주어가 된다. 만약 영어 문장의 주어가 사람일 경우에는 독일어의 대응구조로 단어 그대로 번역할 수 있다.

(12)

- a. It was difficult for him to live without his wife.
- b. Es war schwer für ihn, ohne seine Frau zu leben.

그러나 만약 문장의 주어가 사물일 경우에는 독일어에서도 꼭 부정사구문을 써야 한다.

(13)

- a. It took three years for the rocket to reach Saturn.
- b. Die Rakete brauchte drei Jahre, um den Saturn zu erreichen.

(14)

- a. It was impossible for the radio to be repaired.
- b. Es war nicht möglich, das Radio zu reparieren.

(15) 의문사/whether +부정법

- a. I have forgotten what to ask.
- b. Ich habe vergessen, was ich fragen soll.

‘to 부정사구문’ 앞에 의문사(예를 들어 how, whom, when)나 접속사 whether가

오는 영어 부정사구 구문은 독일어의 정형구문으로 대응된다.

본 절에서 영어의 상승구조 등을 포함하여 단순화된 ‘to 부정사구문’과 독일어에서 접속사로 인도되며 정형 문장 *finite clause*으로 의미적으로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는 대응구조를 비교검토하면 영어의 부정사구문이 일종의 정형구문이 축약된 형태로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어의 ‘to 부정사구문’이 독일어에서는 해당구문이 없는 경우도 찾을 수 있다(예: *Er hofft, geliebt zu werden* vs. **Er hofft, geholfen zu werden*; *He hopes to be loved* vs. *He hopes to be helped*).

혹자는 독일어와 영어의 부정사구문의 비교에서 대응하는 구조들의 관계가 자의적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지만 위에서 제시한 영어와 독일어의 많은 부정사구문들의 대응관계는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사구문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관점은 한편으로 게르만어의 역사적 격변화에서 이전의 다양한 형태론적 격의 구분에 의해 의미적 기능이 훨씬 분화되었던 것이 격체계가 붕괴되면서 의미적 기능이 소수의 격에 통합 혹은 수렴하는 과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cf. 영어의 경우 주격 *Nominativ*와 대격 목적어 *Akkusativ*). 즉, 게르만어의 격의 단순화에 비추어 현대영어의 ‘to 부정사구문’은 ‘주어와 목적어’를 중심으로 본래 다양한 정형구문들이 단순화를 통한 수렴적 과정을 거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어의 경우는 비인칭수동이나 3격의 존재로 인해 주어 중심의 문법구조 단순화에 제약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예: *An dem Wagen scheint noch gearbeitet zu werden*; *Ihm scheint geholfen zu werden*; *I hope to like the book* vs. **Ich hoffe, dieses Buch zu gefallen*). 특히 이러한 관점은 다음장에서 독일어와 영어의 격체계를 비교하면 더욱 명백해진다.

4. 게르만어 격체계의 변화와 함의

인구어조어에 존재하였던 8개의 격(주격, 소유격, 여격, 대격, 탈격, 처격, 도구격, 호격)은 고트어에서 5개의 격(주격, 소유격, 여격, 대격, 호격)으로, 그리고 다시 다른 게르만어들에서 4개의 격(주격, 소유격, 여격, 대격)으로 통합되었는데, 소실된 다른 나머지 격들의 기능은 주격, 호격을 제외한 속격, 여격, 대격에 분배

되었으며 이 중 특히 여격에 많은 기능들이 분배되었다(Harbert 2007, Salmons 2015).

형태상으로는 곡용 접사의 소실 및 통합과 함께 고대 언어들에서 이미 남성과 여성에서 형태상으로 주격과 대격의 구별이 나타나지 않으며, 관사에 의하여 두 격이 표시되었다. 현대 독일어에서는 격이 오직 남성과 중성의 소유격에서만, 그리고 복수 여격어미 **-n**에 의해서만 형태적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곡용 접사에 의하여 표시되었던 문법적인 정보는 전치사나 조동사 등을 사용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현된다.

표 1. 게르만어의 명사 Tag의 격변화(Harbert 2007)

수	격	고트어	고대고지독일어	현대독일어
단수	주격	dag-s	tag	Tag
	소유격	dag-is	tag-es	Tag-(e)s
	여격	dag-a	tag-e	Tag-(e)
	대격	dag	tag	Tag
	호격	dag	-	-
	도구격	-	dig tagu	-
복수	주격	dag-os	tag-a	Tag-e
	소유격	dag-e	tag-o	Tag-e
	여격	dag-ams	tag-um	Tag-en
	대격	dag-ans	tag-a	Tag-e

기능상으로 주격은 일반적으로 주어 및 주어를 지시하는 서술 명사(predicative noun)로 기능하며, 소유격은 전형적으로 소유의 상태를 지시한다.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던 소유격은 중세독일어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었으나 소유격 사용의 감소와 함께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몇몇 형용사에서만 이러한 구문이 살아있을 뿐이다. 중세 때까지는 직접목적어로서 소유격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소유격 사용의 감소는 게르만어 통사부 Syntax의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로 13세기 이후 빈번하게 관찰되나 그 시작은 고대고지독일어 시대 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Lockwood 1968 참조).

문장에서 주로 간접목적어를 지시하는 3격 여격은 원래 행위어의 참여를 나타내는 격이며 특히 재귀적 여격은 아주 초기 시대부터 발견된다.

- (16) 고대고지독일어 *ih zwelifi..... mir irwelita*
 I twelve..... me chose

게르만어의 여격은 인구어 여격의 기능과 탈격, 처격, 도구격의 기능을 이어받았으며 전치사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격이며 게르만어의 대격은 문장에서 직접목적어를 지시하는 격이다(Krahe 1972).

또한 초기 고대고지독일어의 몇몇 남성, 중성명사들에서 도구격의 흔적이 관찰되지만 지금은 사라졌으며 고대고지독일어의 *hiu tagu* 'this day' > *hiutu* > *heute* 'today' 등의 형태 등이 화석화된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다(Lockwood 1968, Krahe 1972).

이러한 게르만어의 격변화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영어의 경우 격체계의 붕괴가 독일어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되었고 문법관계의 실현이 더 이상 형태론적인 격에 의존하지 않으며 보수적인 격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어의 격체계와 연관된 의미분화가 영어의 대응구조에서는 중립화 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위의 3절에서 다룬 영어와 독일어의 부정사구의 차이도 사실은 형태론적 격체계의 붕괴에 따른 명사구를 중심으로 한 문법관계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즉 부정사구에 숨어 있는 공범주 PRO 등의 구조도 명사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독일어나 영어에 있어서도 부정사구문의 해석은 주절에 종속되어 있는데 공범주 PRO는 영어의 경우 주절의 주어와 동일시 될 경우가 많은 반면에 독일어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독일어의 경우 3격 목적어가 부정사구문의 암시된 PRO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언어체계의 거시적 변화와 관련된 논리는 동사의 형태소 변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

5. 동사전철의 변화

동사전철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독일어에서 타동사에 전철 *be-*가 붙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Zifonun et al. 1997: 1348).

- (17) a. Die Stadt baut Reihenhäuser auf den Südhang. - Die Stadt bebaut den Südhang

mit Reihenhäusern.

b. Der Kleine kleckerte Kakao auf seinen Pulli. - Der kleine bekleckerte seinen Pulli mit Kakao.

(17a)와 (17b)에 있어서 각각의 첫 번째 예문들이 단지 대격목적어의 전이 Transfer만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be-동사가 사용된 두 번째의 경우 논항으로서 주어와 목적어가 사태에 관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의 예문들은 대격목적어로서의 대상이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으로 사태의 영향을 직접 받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예문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독일어의 경우 be-전철의 사용과 동사를 중심으로 한 3-4격 논항교체에서는 뚜렷한 의미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반면에 고대영어에서 생산적이었던 해당 구조가 현대영어에 이르러 내재적인 3격이 붕괴됨으로서 이러한 의미관계는 통사적 규칙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다. 영어의 구조에서 3격의 붕괴는 be-접두어(전철)을 활용한 동사들의 사용에도 부분적으로 변화를 가져왔음에 기여했다고 본다. 현대영어에서도 ‘belie’ 같은 동사의 존재는 아직도 이전의 보수적 잔재로 여겨지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영어의 경우 be 전철의 사용이 구조적으로 쇠퇴할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독일어에서의 be-전철을 활용한 문법화과정을 염두에 두었을 때 서게르만어의 진화과정에서는 동사를 중심으로 한 절의 타동성 Transitivity에 대한 1격 주어와 4격 목적어의 의미적 관계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Seong 2014). 이러한 문법관계의 변화는 고대영어와 현대영어의 관련된 격체계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건상황 Sachverhalt에 참여하는 동사를 중심으로 한 논항들의 관계가 보다 의미적으로 투명하고 정밀하게 분화되었던 구조가 영어의 경우 형태론 상 불투명하게 진화하는 경우이다(Seong 2016). 즉 영어는 더 이상 독일어와 같은 접두어/전철의 사용에 기반한 의미 분화가 아니라 통사적인 장치의 기능에 의존하는 문법기제를 발달시키게 되었고 동일한 형태의 동사가 다양한 의미의 구성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예: He loaded the truck with hay. vs. He loaded hay unto the truck; Ein Tuch auf den Tisch legen/*stellen/*setzen vs. to put a cloth on the table; ein Glas Milch in den Kuehlschrank stellen/*legen/*setzen vs. to put a glass of milk in the refrigerator). 이러한 논리는 독일어와 같은 SOV언어가 격과 엄격한 선택적 제약들을 통해 보

다 많은 논항구조들(결합가틀)을 차별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독일어의 문법 관계는 보다 좁은 의미 해석을 허용하며 문법 관계가 중의성을 띄게 되는 경우가 영어보다 적다는 맥락과도 연결된다(예: I am cold vs Mir ist kalt/Ich bin kalt, cf. Hawkins 1995 König 2001, Seong 2016). 독일어와 영어사이의 이러한 형태론상의 차이가 문법관계에 대해 갖는 함의에는 특정한 체계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고 이는 언어교수와 학습과정에도 연결된다.

6. 비교언어학이 제시하는 언어교수에 대한 시사점

우리는 위에서 독일어와 영어의 다양한 문법구조들을 비교해 보았다. 독일어와 영어의 해당하는 대응구조에서 두 언어 간에 일정한 문법적 범주를 분류하는 데 있어 우리는 한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특정한 구조에서 더 차별화되어 분류된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논의한 언어들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들은 외국어로서 다른 각각의 언어(영어, 혹은 독일어)를 습득할 때 어떤 분화 Divergenz에 해당하든지 발화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특히 앞에서 논의한 독일어와 영어의 구조들을 비교했을 때 영어의 모어화자가 독일어를 배울 경우 해당 구조에서 더 세부적인 분화과정을 습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예: Are you going to Germany this summer? vs. Fliegen Sie diesen Sommer nach Deutschland?; I am cold vs. Mir ist kalt/Ich bin kalt). 사실 두 언어를 더욱 체계적으로 비교하면 한 언어는 어떤 경험 영역에서 더 분화적이나 다른 경험 영역에서는 덜 분화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 절에서 제한적이나마 제시한 구조들을 기반으로 보면 이러한 분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더 분화된 지시 체계를 가진 언어의 화자는 이러한 인지영역의 경험의 측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이와 같은 특별한 주의력의 정도는 언어습득과정에서 학습되어 질수도 있고 의사소통 행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Seong et al. 2018). 이것은 개인이 제 2언어를 학습할 때 정말 성공적으로 해당 언어를 습득하려면 이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될 수 있는 한 비슷하게 경험을 관찰하고 코드화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cf. Carroll 1963). 이와 같은 과정은 문법적 차이를 넘어 상호문화적인 담화구조의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학습자의 모국어와 관련하여 제 2언어의 특정 문법현상들은 수렴될 수 있지만 또 다른 구조들은 분산될 수 있다. 수렴하는 현상은 모국어에서는 두 개 이상의 기호로 나타나는 지시물이 제 2언어에서는 더 작은 수나 하나의 기호로 나타나는 경우, 분산하는 현상은 반대의 경우인데, 즉 제 2언어가 제 1언어보다 더 많은 수의 기호와 이에 상응하는 의미론적 구분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언어교수자들과 학습자들은 이런 두 가지 현상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이는 인지적 학습과 교육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언어사용자가 발화자일 때는 분산하는 것이 아마도 더 중요할 것이며, 반면 수렴하는 것은 청자일 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렴하는 차이를 배우는 것보다는 분산적 차이를 배우는 것이 아마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분산적 차이를 위해서는 선별하는 반응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반면 수렴의 경우에는 단지 해석 반응만이 요구될 뿐이다.

앞서 1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외국어를 배울 때 등장하는 인지학습이론은 의도적으로 특정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 2 언어습득과정을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과정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일정한 언어구조의 원리에 입각하여 비교 언어적 차이점을 학습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이러한 관점은 또한 두 언어를 비교함으로써 L2 습득에서 생길 수 있는 학습자의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설명하는 제2언어 습득의 방법론인 전통적인 대조분석가설과는 다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cf. Saville-Troike). 구체적인 개별적인 구조들에 입각하여 대조를 통해 습득과정을 연구하는 대조분석방법과 비교하여 본 글에서는 영어와 독일어의 문법구조 사이에 깔려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어 언어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러한 비교 언어적 관점의 분석은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관련 외국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Carroll, John B. (1963): Linguistic Relativity, Contrastive Linguistics, and Language Learning.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1(1):1-20
- Denison, David (1993): *English Historical Syntax: Verbal Construction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Haegeman, L. (1994): *Introduction to Government & Binding Theory*. [2nd ed.] Blackwell.
- Harbert, W. (2007): *The Germanic Langua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ris, A. & Campbell, L. (1995): *Historical Syntax in Cross-Linguistic Perspective (Cambridge Studies in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wkins, J. A. (1986): *A comparative typology of English and German: Unifying the contrast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Hawkins, J. A. (1994): *A performance theory of order and constituen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wkins, J. A. (2004): *Efficiency and Complexity in Grammars*. Oxford: OUP.
- Hoops, T. und Hoops, W. (1991): *Training Übersetzen Englisch-Deutsch Sekundarstufe II*. Stuttgart: Klett-Verlag
- Huddleston, R./Pullum, G.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ller, R. E. (1995): *Die Deutsche Sprache und ihre historische Entwicklung*. Buske Verlag.
- Koenenman, Olaf & Zeijlstra, Hedde (2017): *Introducing Syntax (Cambridge Introductions to Language and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önig, E. (2001): *Kontrastive Analysen Deutsch-Englisch: eine Übersicht*. In: *Deutsch als Fremdsprache: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Hrsg.) von Gerhard Helbig, Lutz Götze, Gert Henrici & Hans-Jürgen Krumm Berlin: de Gruyter.
- Krahe, H. (1972): *Grundzüge der vergleichenden Syntax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Innsbruck: Innsbrucker Beiträge zur Sprachwissenschaft.
- Lockwood, W. B. (1968): *Historical German Syntax*. Oxford: Clarendon Press.
- Olsen, S. (1996): *Partikelverben im deutsch-englischen Vergleich*". In *Deutsch - typologisch*, ed. Lang, Ewald & Gisela Zifonun, 261-288. Berlin: Mouton de Gruyter.
- Plank, F. (1984): *The modals story retold*. *Studies in Language* 8/3: 305-64.
- Salmons, Joseph (2015): *A History of German*. Oxford University Press.

- Saville-Troike, M. (2006): *Introduc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ong, S. H. (2014): Transitivity and Prototype Parameter: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Interdisciplinary Journal for Germanic Linguistics and Semiotic Analysis*. 19:2. 207-226.
- Seong, S. H. (2016): Behaghel's Laws and the word order principles revisited. *Interdisciplinary Journal for Germanic Linguistics and Semiotic Analysis*. 21:2. 243-262.
- Seong, S. H. et al. (2018): Untersuchung des Sprechaktes der Entschuldigung im Koreanischen, Deutschen und Englische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Sprecherverantwortung. *Neue Beiträge zur Germanistik(JGG)*. 16:2. 118-138.
- Vennemann, Theo (1982): Deutsche, englische und koreanische Wortstellungssyntax aus typologischer Sicht Sonderdruck aus *Zeitschrift für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Nr. 17, Seoul.
- Visser, F. (1972): *A historical syntax of the English language*, Bd. 2. Leiden.
- Waterman, J. T. (1976): *A history of the German Language*. Illinois: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Zifonun, G. Hoffmann, L und Strecker, B. (1997):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Schriften des Instituts für deutsche Sprache, Band 1-3, Berlin: de Gruyter.

Zusammenfassung

Die Prinzipien der vergleichenden Sprachwissenschaft und ihre Implikationen für Fremdsprachenunterricht -mit besonderer Bezugnahme auf Deutsch und Englisch-

Seong, Sang Hwan (Seoul Nat'l Univ.)

Der Zweck dieser Studie ist es, die Beziehung zwischen vergleichender Sprach-

wissenschaft und Fremdsprachenunterricht zu untersuchen, wobei der Schwerpunkt auf deutschen und englischen Grammatikstrukturen liegt. Insbesondere befasst sich dieser Artikel mit den typischen typologischen Unterschieden und Merkmalen von Deutsch und Englisch sowie mit den Unterschieden, die beim vergleichenden Unterrichten der beiden Sprachen zu beachten sind. In diesem Artikel werden die allgemeinen Merkmale des Deutschen, das die germanischen Sprachen vertritt, und die Arten und Merkmale der Infinitivphrasen des Deutschen und des Englischen im Hinblick auf die Übersetzung und den Fremdsprachenunterricht untersucht. Dieser Aufsatz untersucht kritisch, wie diese Diskussion mit den historischen Veränderungen des germanischen Systems und den Veränderungen in der Form von verbalen Präfixen zusammenhängt und schlägt Implikationen für den Fremdsprachenunterricht vor.

[Schlüsselwörter] Comparative Linguistics, Foreign Language Education, Comparison between German and English, Infinitive Constructions, Germanic Case System Change, Germanic Verbal Prefix Change.

성상환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sseong@snu.ac.kr

논문투고일: 2019. 12. 4.

심사완료일: 2019. 12. 11.

게재확정일: 2019. 12. 17.